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소식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발행인 : 조형숙

편집인 : 주봉관·이종향

발행처 :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303관 1230호

Tel : (02)820-5398 | E-mail : ks_ecte@naver.com | <http://www.eceteacher.com>

유아교육현장에서 베이비붐 그리고 X, Y, Z 세대와 공존하기

이 종 향 교수 (거제대학교)

세대 간의 갈등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 지속되어온 사회갈등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 중의 하나이다. “요즘 젊은이는 버릇이 없다”라는 한탄은 모든 세대에 걸쳐 공통되게 발견된다.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1700년경 수메르인의 점토판에 기록되었고, 로마시대에 키케로가 카탈리나 탄핵문에서 세대를 한탄했다고 하는 문헌이 남아 있다고 하니 세대 갈등은 참으로 해묵은 과제라 할 수 있다(서병조, 2019).

세대(世代)는 인간이 태어나서 자식을 잉태하기까지 걸리는 대략 30년 주기를 뜻하는 ‘세(世)’와 먼저 태어난 사람과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교대한다는 의미인 ‘대(代)’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또한 태어난 시기가 비슷한 이들의 집단을 세대라고 부른다. 세대란 꼭 생물학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사회학적으로도 구분되고 있는데, 디지털 세대의 기준은 10년 단위로 더 세분화하고 있다.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의 세대 구분에 맞춰 김성희(2020)의 저서인 ‘센 세대, 긴 세대, 신세대 3세대 전쟁과 평화’에서 기술한 세대별 특징을 정리해보면, 베이비붐세대는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1차 베이비붐세대는 1955년~1964년생, 2차 베이비붐세대는 1965년~1974년생이 해당되며, 이들은 빈곤과 고속 경제성장, 민주화를 경험하면서 치열하게 살다보니 나보다는 가족, 국가 등의 집단주의 문화를 중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X세대는 1975년~1984년생이 해당되며, 이들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 개인주의와 남들과 차별화되길 원하는 개성의 표출을 중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Y세대는 1985년~1996년생이 해당되며, 이들은 각종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네트워크의 발전을 온몸으로 체감하여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과 올로(You Only Live Once)의 가치를 중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마지막 Z세대는 1997년~2010년대 초반이 해당되며, 이들은 X세대인 부모로부터 자유로운 가치관을 물려받아 수직적 관계 대신 수평적 관계

에서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소통을 중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2010년대 이후에 산업현장에 MZ세대(Y세대, Z세대의 통칭)가 등장하면서 조직 내 세대의 융합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조범상, 2015) 이는 교육현장도 예외는 아니다(정바울, 2019). 구성원 간 밀도가 높다 보니 조금만 건드려도 파장이 크고 상처가 깊다.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청과 학교, 교사와 교사 그리고 학생, 학부모 등이 촘촘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조직에서 갈등은 불가피하고 불가결한 문제이다. 특히 새학기의 시작인 3월은 낯선 환경에서 교실 곳곳에서 예민한 뇌관과 맞닥뜨리게 된다. 교사들 간에는 업무분장과 같은 외형적 요인은 물론 친구세대 간의 보이지 않는 대립에 힘들어 한다(김태준, 2004; 이장익, 이명신, 2011). 학부모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어렵다. 가끔 막무가내식 일방통행에 교권이 침해받기도 한다(정바울, 2019). 이러한 특성으로 교직은 어떤 시점에서든 적어도 셋 또는 네 개의 세대가 공존하고 함께 일하는 일터이자 조직이다(Stone-Johnson, 2016). 최근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한 현장의 교사들에게 “자신은 성공했는가?”에 대해 물었더니, Z세대인 저경력 교사는 “아이를 돌보고 가르치는 일이 좋아서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으니 저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Y세대인 교사는 “유아를 돌보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자신을 위한 미래를 계획하고 추진해가는 것이 다소 부족해서 성공을 향해 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 X세대인 중경력 교사는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성공한 삶이라 생각되는데 아직 멀었어요.”로 답변하여 이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육·보육과정 운영 시 다양한 세대와 빈번하게 교류하다 보니 저마다의 가치관과 인식의 차이로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적절한 갈등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세대갈등이 지속되면 원장은 운영여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교사는 이직과 퇴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학부모 또한 아이의 재원여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이는 통합과 협력을 중시하는 유아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대부분 세대갈등의 표면적 원인은 책임감과 조직문화를 강조하는 기성세대(조부모, 원장, 고경력 교사)와 개인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저경력 교사, 부모) 간의 인식 차이에 있다.

이제는 유아교육현장에서도 과거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며 모든 세대를 통합시키려 하기 보다는 각 세대의 서로 다른 특징을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작년 기아자동차의 카니발광고 중 ‘음악’ 편은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광고의 내용은 1990년대 인기 드라마 ‘질투’의 OST를 듣고 싶어 하는 X세대 아빠와 자이언티(Zion.T)를 좋아하는 Y세대 엄마의 선곡 갈등을 Z세대 딸이 자이언티가 부른 ‘질투’를 선곡하여 갈등을 해결한다. 이처럼 일부가 아닌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세대갈등의 바람직한 해결방향이다.

통합과 협력의 유아교육현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원장, 교사, 학부모의 각 관점이 자신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항상 고민해야 하며, 혹여나 비호감을 만드는 ‘꼰대’의 관점이 아닐지 살피고 또 살피서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교직에서 세대별 갈등 해소를 위한 만병통치약은 없지만 효과적인 방법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서가치관이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고 그 자체를 존중해주는 것이다. 기성세대는 새로운 세대의 태도를 못마땅해 하고 편견을 주기보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입장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 또한 권위를 앞세워 억누르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고 소통과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경우에, 젊은 세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꼰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반면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가 이룬 성과와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너희 세대는 그제 문제야”, “당신 세대와는 달라”라는 세대 간을 규정짓는 언어를 삼가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제는 학계나 교육현장에서도 다양한 세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상황뿐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경제적 자원의 분배에서 경험하게 되는 세대의 갈등을 공감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교육현장에서도 세대공감 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유아교육 현장은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 Z세대가 통합과 협력으로 어우러지는 교육현장이 되어 유아교육의 질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20년 학회소식

1. 편집부_학술지 발간

1) 유아교육학논집 발간

- 2021년에 「유아교육학논집」 제 25권 1호가 발간되었으며 2호가 발간 예정입니다.
- 학회지인 「유아교육학논집」은 연 6회 (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 발간됩니다.

2) 학술지 등재학술지 인증

- 2018년부터 「유아교육학논집」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등재학술지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3) 2020년도 학술지지원사업 신규 과제 선정

- 2020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지원사업 신규 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4) 유아교육학논집 저작권 안내시스템(KJCI) 등록 및 투고규정 변경

- 2020년 2월 20일부로 유아교육학논집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학술지 저작권 안내시스템(KJCI)에 등록되었습니다.
- 2020년 제24권 2호(4월 30일 발간)부터 유아교육학논집에서 발행한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정보가 안내됨에 따라 투고규정(제6조 CCL 설정)이 변경되었습니다.

5) 유아교육학논집 규정 변경

- 유아교육학논집의 투고 및 발간규정이 일부 변경(2020년 2월 26일 시행)되어 석사학위논문의 요약본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 유아교육학논집의 윤리규정(2020년 9월 1일 시행), 투고 및 발간규정(2020년 12월 31일 마감에 투고된 논문부터 적용)이 일부 변경되어 연구윤리 강화 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 홍보부_뉴스레터

1) 뉴스레터 통권 38호(2020년 9월) 발행

-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홍보부 황연옥 이사(한양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기고
- 기고문 제목 : ‘언택트’ 시대의 유아 교사교육

2) 뉴스레터 통권 39호(2021년 4월) 발행

뉴스레터가 회원님들의 기쁜 소식(임용 및 출판 등)을 나눌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3. 학술부_학술대회

1) 2020년 추계 학술대회

- 주 제 : 아이들의 만남과 놀이가 살아나는 교육공간
- 일 시 : 2020년 9월 12일 토요일 9:30~17:00
- 장 소 : 신구대학교 식물원(기조강연 및 주제 발표장)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홈페이지 및 온라인 강의실
- 참여인원
 - 유아교육과 및 보육학과의 교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 정책 담당 등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관련 종사자 550명 이상 참가
- 학술대회 내용
 - 교육공간의 혁신, 왜? 어떻게!
고인룡 교수(공주대학교 건축학과)
 - 테크놀로지와 영유아교육공간
김우창 교수(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 개정 누리과정과 창의적 놀이공간 조성방안
강은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 종합토론
백선희 소장(육아정책연구소)
 - 분과 발표 논문 26편, 기획분과 2편, 포스터 발표 논문 15편, 사진전

2) 2021년 춘계 학술대회 개최

- 주 제 : 유아교육기관 세대 문화의 이해와 협력방안 모색
- 일 시 : 2021년 4월 24일 토요일 9:00~14:20
- 장 소 :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유치원(기조강연 및 주제 발표장)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홈페이지 및 온라인 강의실
- 참여인원
 - 유아교육과 및 보육학과의 교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 정책 담당 등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관련 종사자 700명 이상 신청
- 학술대회 내용
 - 문화사회학으로 바라본 한국 사회 세대간 문화 경험과 문화 갈등의 자화상
최셋별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 교직 내 세대간 문화차이 및 인간관계 개성 방안
윤소희 교수(한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직부)
 - 유아교육기관 구성원의 세대간 갈등 및 해결방안
최재원 원장(우정유치원)
 - ‘유아’ 대상 연구자를 위한 연구 윤리
안지영 교수(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 분과 발표 논문 23편, 기획분과 2편, 포스터 발표 논문 6편

3. 연구부_연구법특강

1) 2020 겨울방학 연구법 특강

- 일시 : 2021년 1월 13일 (수) ~ 2021년 1월 16일 (토)
- 장소 : 온라인 강의실
- 특강 내용

일시	내용	강사	참석인원
2021.1.13.(수) 10:00~17:00	양적연구 방법 기초 (통계의 기본 개념, 추리통계, 관계 분석)	이현정 교수 (고려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42명
2021.1.14.(목) 10:00~17:00	양적연구방법 심화 (로지스틱 회귀분석)		38명
2021.1.15.(금) 10:00~17:00	질적 연구의 이론 (질적 연구의 철학적 배경과 전통)	서덕희 교수 (조선대학교 교육학과)	54명
2021.1.16.(토) 10:00~17:00	질적 연구의 실제 (질적 연구의 계획과 설계)		55명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가입 안내

1. 학회 가입 안내, 연회비 납부 및 개인정보 안내

1) 학회 가입 및 연회비 납부

- 학회에 신규 가입하실 때에는, 홈페이지(www.eceteacher.com)에 회원가입 후, 가입비(1만원)와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정회원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 연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님께는 연 6회 발행되는 학회지(유아교육학논집)를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 류	구 분	회 비	입금계좌
가입비	가입 시	1만원	우체국 011775-02-146071 (예금주: 이승하)
연회비	일반회원	4만원	
	학생회원(석사과정까지 포함)	3만 1천원	
	평생회원(45세 이상)	30만원	

2) 개인정보 변경에 대한 안내

- 본 학회의 회원관리와 학회지 발송은 홈페이지의 온라인 가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편물이나 학회지의 배송, 학회를 통한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회원님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먼저 정보를 수정해 주시고, 학회메일 ks_ecte@naver.com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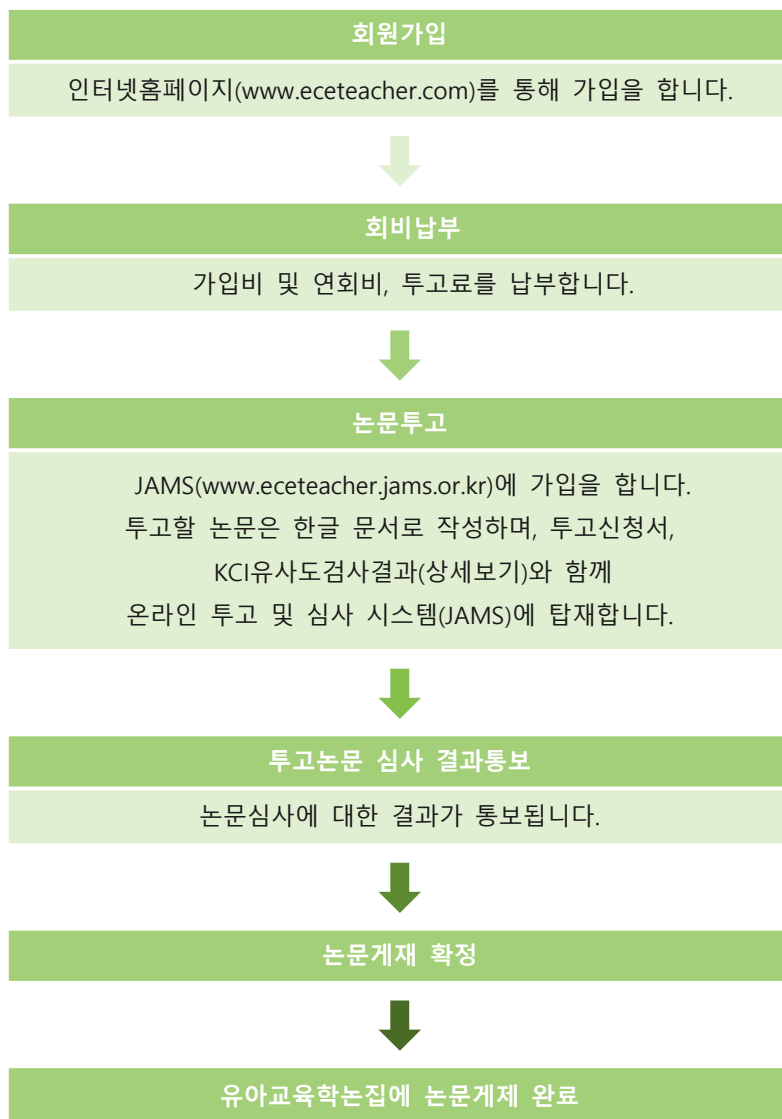
2. 유아교육학논집 투고 안내

1) 논문투고 안내

-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의 학회지인 『유아교육학논집』에서 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 투고 시, 투고자 모두 본 학회의 홈페이지 [www.eceteacher.com]에 회원가입을 하신 후, 가입비(최초 가입 시)와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학회의 회원 승인(납부확인) 후에 심사가 진행됩니다.
-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의 학회지인 『유아교육학논집(ISSN 1229-5809)』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이며, 연 6회(발간일: 2/28, 4/30, 6/30, 8/31, 10/31, 12/31) 발간합니다. 원고 마감일은 발간일 2달 전까지입니다.
- 논문투고 및 심사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JAMS)에서 진행됩니다(www.eceteacher.jams.or.kr).

- 논문투고와 관련된 문의
 - 주 소 : (38541)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신관 463호 유아교육과 윤재희 교수 연구실
 - 연락처: 053) 810-2891 / 010-2589-2771 (김선희 간사)
 - 이메일: child2362@hanmail.net (※ 학회 메일 주소와 다름)

2) 논문투고 절차



3) 투고료 및 게재료 안내

종 류	내 용	비 고
투고료 (심사비)	100,000 원	
재투고료 (재심사비)	70,000 원	1차 심사의 재심사비
	20,000 원	2차 심사의 재심사비
게 재 료	기본 18쪽까지 200,000 원	추가 1쪽당 20,000 원 (18쪽 초과시, 총 25페이지 이내)
연구비 수혜논문일 경우	추가 200,000 원	
입금계좌	우체국 : 703025-02-138760 (예금주: 윤재희)	